

2004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메시지

정보통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보통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73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떠받쳐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에도 정보통신 분야가 무려 일곱 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계 10대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고 5대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애써 주신 정보통신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가게 해야 합니다. 전통주력산업도 IT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저와 정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개발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체와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 봅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2만 달러 시대의 튼튼한 기반을 다진 2004년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